

老舍의 단편소설 《黑白李》 다시 읽기*

金水珍**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작품 탄생 배경: 북경 인력거꾼 전차 파괴 사건
3. 기독교적 색채: 카인과 아벨의 변용과 희생
4. 소설과 영화 「黑白李」
5. 나오며

1. 들어가는 말

良友圖書印刷工司에서 1934년 9월 첫 발행한 老舍(1899~1966)의 단편소설집 《趕集》에는 <序>를 포함하여 《五九》, 《熱包子》, 《愛的小鬼》, 《同盟》, 《大悲寺外》, 《馬褲先生》, 《微神》, 《開始大吉》, 《歪毛兒》, 《柳家大院》, 《抱孫》, 《黑白李》, 《眼鏡》, 《鐵牛與病鴨》, 《也是三角》의 15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다. 《趕集》은 특히 老舍가 대학에 재직하며 결혼생활과 교학 등의 일로 바쁜 시기에 틈틈이 써낸 작품들을 모아 엮어낸 첫 번째 단편소설집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 가운데 《黑白李》¹⁾ 작품은 《趕集》에 수록되기 전 1934년 1월 1일 《文學季刊》창간호에 게재되어 독

* 이 논문은 201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誠信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1) 본고는 《老舍文集》第8卷(人民文學出版社, 1995)에 실린 《黑白李》를 저본으로 하였다.

자들과 처음 만났으며 십여 년이 지나 다시 1947년 4월 《微神集》에 이어 《老舍短篇小說選》, 《老舍文集》제8권에 차례로 실리게 된다.

기교면에서 《黑白李》는 그리 성숙한 작품은 아니다. 내가 단편소설을 짓 연습하고 배우던 때에 나와서이다. — 나는 장편소설 몇 편을 먼저 발표하고 나서야 단편소설을 써보게 되었다. …… 요즘 보기에 《黑白李》는 우스운 작품이고 심지어 황당하기까지 한 작품이다. 하지만 분명 당시 나에게 사상적인 변화가 약간은 있었다는 점만큼은 증명해 준다고 하겠다.²⁾

위 내용은 1950년 老舍가 쓴 <《老舍選集》自序>에 실린 글의 일부이다. 창작을 한 지 16년 후인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의 글로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도 어느 정도 맞물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고찰할 老舍의 《黑白李》 소설의 관련 연구는 중국을 비롯하여 국내에서의 연구 역시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老舍 본인이 지나치리만큼 박하게 썼던 위와 같은 自評의 영향을 비롯하여 당시에 작가의 혁명에 대한 이해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저평가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당시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黑白李》는 중국에서도 작품성 및 그 가치에 대해 현재까지 異論이 엇갈리는 문제작으로서, 당시 중국 사회와 老舍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재조명이 필요한 작품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2010년에는 이 소설이 원작과 같은 제목 그대로 영화화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老舍의 단편소설 《黑白李》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실제 사건인 북경 인력거꾼 전차 파괴 폭동 사건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텍스트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작품 속에 투영되어 있는 기독교적 색채를 조명함으로써 작가의 창작 의도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영화 「黑白李」와의 비교를 통하여 원작이 영화화되어 이루어진 서사적 변용

2) 論技巧, 《黑白李》是不很成熟的, 因爲它產生在我初學練習短篇小說的時候 — 我是先發表過幾部長篇, 以後才試寫短篇的。…… 在今天看起來, 《黑白李》是篇可笑的, 甚至于是荒唐的作品。可是在當時, 那確足以證明我在思想上有了些變動。(老舍, <《老舍選集》自序>, 《老舍文集》第16卷, 人民文學出版社, 1995, 219-223쪽) 이 自序는 1950년 8월 《人民日報》에 게재되었고, 《老舍選集》는 그 이듬해인 1951년 8월 開明書局에서 출판되었다.

및 동일한 서사적 흐름에 관해서 분석하여 《黑白李》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해 보도록 할 것이다.

2. 탄생 배경: 북경 인력거꾼 전차 파괴 사건

1930년 영국에서 귀국한 老舍는 자신의 작품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유희적 창작인 점을 고민하며 창작의 길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게 된다. 당시 중국 문단은 문학 혁명에서 혁명 문학으로 흐름이 바뀌어 있었고 老舍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내용과 기법 등의 예술적인 면에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老舍는 《黑白李》를 창작하게 된다.

《黑白李》는 작가 본인이 유머와 해학을 담은 기존의 작품 경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창작한 초기 실험작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스스로 성공적인 단편작품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1951년 《老舍選集》에 이 작품을 수록하면서 상술한 바와 같이 老舍는 자신이 어떻게 혁명문학 이론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소설의 작품성에 대한 작가 본인의 자신감과 긍정이 없었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 엄선한 작품집인 《老舍選集》에 이 작품을 결코 실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³⁾

창작 당시로서는 老舍의 새로운 시도이자 야심작이었던 《黑白李》의 배경

3) 작품성을 재조명받고 있는 《貓城記》 역시 비슷한 시기에 창작한 소설로, 알려진 바와 같이 老舍 본인의 당시 자평 역시 부정적이다. 老舍는 당시 정치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 실망하여 《貓城記》를 창작하면서 당시 군벌, 정치가들과 통치자들을 비롯하여 진보 성향의 인물들을 풍자하면서 이들이 그저 공담만 일삼을 뿐 실제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老舍는 그 후에 자신이 혁명에 참여하지 못해 혁명가들의 열정과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러한 풍자를 하게 것을 몹시 후회한다고 밝히며 이 작품을 재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老舍, <《老舍選集》自序>, 224쪽 참고) 이 역시 이후 정치 상황에 따른 老舍의 부득이한 발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은 1929년 10월 22일 北平⁴⁾에서 일어난 전 중국을 뒤흔들었던 인력거꾼 '폭동' 사건이다.

중국에 인력거가 들어오게 된 것은 일본을 통해서였으며 인력거를 처음에는 '洋車'라고 불렀다.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1917년 당시 북경에는 20,674대의 인력거가 있었다. 1939년 인력거꾼을 주인공으로 한 老舍의 대표작인 《駱駝祥子》를 쓸 무렵의 인력거 수는 이미 37,038대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개인용 인력거는 2,498대였다고 한다. 《駱駝祥子》속 曹선생택의 인력거가 이에 속한다. 인력거꾼은 5만여 명에 달했으며 인력거 제조 공장 혹은 인력거 점포는 7, 80곳이었고 전문적으로 인력거를 대어해주는 곳은 4, 5여 곳이었는데 이 소설에서 虎妞의 부친인 劉四爺가 이에 속한다. 당시 북경시 인구가 180만 명에 남자는 90여만 명, 이 가운데 인력거 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5%였던 사실⁵⁾을 생각해 본다면, 이 수치는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북경을 배경으로 한 《黑白李》 작품의 실제 모티프가 된 북경 인력거꾼 전차 파괴 사건은 이보다는 이른 시기인 1929년 발생한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대사건이었다. 북경의 하층민으로 인력거를 끌며 겨우 생계를 유지해오던 이처럼 많은 인력거꾼들이 전차 운행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왔게 되는 처절한 상황 앞에서 이들의 성난 '폭동'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여러 신문들 가운데 《申報》와 《國民日報》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노동조합의 지도하에 북경 전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 북경 인력거꾼들이 전차 수십 대를 부수었고 국민당 군인과 경찰에게 잔혹하게 진압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 사건을 주도한 노동조합은 해산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지도자급 인사들은 전부 체포되었고 1000여 명의 인력거꾼들이 체포되었다. 가담자는 인력거꾼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청소부, 하수구 작업인부, 짐차

4) 北京 명칭은 시기에 따라 北京와 北平으로 불렸는데, 청조(1644-1911)에서 중화민국시기까지 수도로서 北京으로 불렸고 1927년 9월 국민당 중앙특별위원회가 南京에 정식 성립하여 국민정부를 개편하면서 1928년 6월 국민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北京을 北平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北平으로 불리다가 다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지금까지 수도로서 北京으로 불리고 있다.

5) 孫燕華, <駱駝祥子畫展-老舍名著的形象解讀>, 人民文學出版社, 2006, 144쪽 참고.

기사 등 사회의 하층민에 해당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西單牌樓, 西門大街, 天橋, 東單, 東四, 北新橋에서 西總布 후통 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북경시 전 지역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전차 50여 대가 부서졌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들은 전 북경의 경찰, 군인들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장상 7, 8시간 동안 육탄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북경의 군인과 경찰들은 노동자 40여 명을 죽였고 수백 명을 살상했으며 1600여 명을 체포하였다. 폭동 가담자는 최소한 2만 5천명이었으며, 사건 종료 후에 이들은 재판을 받고 900여 명이 국경 밖으로 쫓겨났으며 4명이 처형당했고 수백 명이 투옥되었으며 수천 명의 노인, 아이, 빈민들이 밥그릇을 빼앗기고 굶주림과 추위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⁶⁾

이튿날 아침 신문에 ‘전차파괴 사건의 수령 李모 현장 체포, 학생 1명과 인력거

6) 吳永平, <老舍小說《黑白李》新解-文本細讀與文化學分析>, 《江漢論壇》2004年 11月, 123쪽; 吳永平, <<駱駝祥子>: 沒有完成的構思-文本細讀及文化社會學分析>, 《江漢論壇》2013年 11月, 112쪽; 慕石, <六萬勞苦群眾的武裝鬭爭>, 《紅旗》第52期(1929年11月10日出版), 《中國空運史料》1982年第4期(總2第21期) 재인용 참고.
 국민당 측의 관련 문건을 살펴보면, 북경시장인 張蔭梧는 23일 노동쟁의 진압을 보고하였다. 22일 일어난 인력거 노동조합의 분규라 하였으며, 총정부는 분규자들을 1200여명으로 집계했으며 구속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이외에 각 거리 골목에 숨어있는 많은 ‘잔당’들이 행동할 위험이 있어 엄중하게 단속하고 현재 시가는 이미 평정되었다고 하였다. 이 인력거꾼 노동조합은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였고 공익에 해를 끼쳤으며 노동조합법 제5절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를 해산시켰으니 지시에 따르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공산당 측의 관련 문건을 살펴보면, 中華全國總工會는 11월 2일 《爲國民黨屠殺北京車夫告全國工人》을 발표하여 ‘홍악하고 잔인한 국민당’이 또 북경에서 도살을 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북경시 노동조합 총연합은 국민당 走狗들이 자본가와 결탁하여 노동자들을 속인 어용기관으로, 이처럼 走狗들(蔣介石과 改組派)이 이 기관을 쟁탈하여 온갖 음모를 써서 노동자들을 저들의 도구로 이용하였고 특히 인력거꾼들과 전차 노동자들이 저들에게 이용되었다고 하였다. 그들은 노동자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총연합회를 쟁탈하는 도구로 썼을 뿐 아니라 특히 노동자들 간의 충돌을 야기 시키고 단결을 무너뜨려 노동자 계급의 역량을 없앴다고 하였다. 또한 질서 유지라는 핑계로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진압하여 총살, 구금, 축출하여 수많은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갈 곳을 잃고 떠돌게 만들었으며 이는 모두 저들의 음모이고 노동자들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였다. (吳永平, <<駱駝祥子>: 沒有完成的構思-文本細讀及文化社會學分析>, 112-113쪽; 《申報》1929年10月25日 재인용 참고; 中華全國總工會《爲國民黨屠殺北京車夫告全國工人》(1929年 11月 2日), 《中國工會歷史文獻》(中華全國總工會中國職工運動史研究室編, 工人出版社, 1958年 재인용 참고)

꾼 5명도 함께 체포'라고 실렸다. 王五는 신문에서 글자들 중 '李'자 하나만을 알아 보았다. "넛째 어르신이 끝장났구나! 넛째 어르신은 끝났어!" 고개를 떨구고서 짐짓 머리의 흉터를 감싼 채 신문 위로 눈물을 쏟았다.⁷⁾

소설 《黑白李》에서도 의욕과 열정만 앞섰던 白李를 비롯한 인력거꾼들의 계획은 이처럼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처참한 대참극을 빚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사건을 문학 속에서 다루고자 한 작가는 당시 老舍가 거의 유일했으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는 사회의 최하층민인 인력거꾼들의 삶에 늘 관심을 기울여 왔었다.

전차로가 곧 개통될 거라는 소식, 아시나요? 전차가 개통되면 우리 인력거꾼들은 전부 끝장이라구요. 이걸 나 혼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구요.⁸⁾

이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1928년에는 수도를 北京에서 南京을 옮기면서 북경의 경제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좋지 않은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기 마련인 인력거꾼들을 비롯한 하층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고되고 힘들어졌다. 20년대 들어 전차의 등장은 인력거꾼들의 생계에 정말이지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가족의 당장 오늘 하루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길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폭동'으로 규정되면서 당시 여기에 가담한 인력거꾼들은 그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서 과격 시위를 벌인 실업자 계층으로 여겨지고 이들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한 그저 평범하고 우매한 노동자들로 인식되

7) 第二天早晨, 報紙上登出——砸車暴徒首領李——當場被獲, 一同被獲的還有一個學生, 五個車夫。王五看着紙上那些字, 只認得一個“李”字, “四爺玩完了! 四爺玩完了!”低着頭假裝抓那塊疤, 淚落在報上。(老舍, 《黑白李》, 《老舍文集》第8卷,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95, 117쪽)

8) “你知道, 電車道快修完了? 電車一開, 我們拉車的全玩完! 這可不是爲我自個兒發愁, 是爲大家伙兒。”(老舍, 《黑白李》, 115쪽)

면서, 비난의 화살은 이들의 노동 파업과 과격 시위를 선동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로 온통 집중되었다.

《黑白李》에서 老舍는 노동자 계급이 아닌 지도자 계층에 해당하는 白李가 어떻게 조직에 가입하고 노동자들을 지도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이끌어갔는지에 관한 부분은 작품 속에 담아내지 못했다. 당시 老舍가 직접 혁명에 참여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학 검열을 우려하여 노골적인 방식의 직접적인 묘사는 본인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소설에서는 폭동과는 무관한 형 黑李가 동생 白李를 대신하여 순교자와도 같은 죽음을 맞는 것으로 끝을 맺었으며 黑李의 죽음과 그의 죽음의 방식은 작품에서 최상의 엔딩이었음을 직접 밝히기도 하였다.

白李는 집안에서 개인 인력거꾼으로 일하는 王五와 신분을 초월하여 친구처럼 허물없는 사이로 지내며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리더의 입장에서 투쟁을 준비하는 인력거꾼들의 조직에 가담한다. 북경과 같은 대도시에 근대화의 산물인 전차의 등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지는 하지만, 당장 실업자로 내몰리게 되자 전차를 파괴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무력으로라도 인력거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넷째 나오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친구 사이라 할 수 있겠어요! ‘王五, 방법을 생각해 봐요.’라고 넷째 나오리가 이야기했어요. ‘넷째 나오리, 제 생각엔 부쉬버리자구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王五! 맞는 말이야. 부쉬버리자!’⁹⁾

형 黑李를 자신이 벌인 일에 연루시키지 않기 위해 白李는 黑李의 오해를 사면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숨긴 채 혁명에 쓸 1000위안을 받아내며 단독 행동을 이어간다. 동생 白李와는 달리 형 黑李는 선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가족, 특히 동생 白李의 행복만을 바라는 평범한 인물이다.

9) “四爺明白這個；要不怎麼我倆是朋友呢。四爺說：王五，想個辦法呀！我說：四爺，我就有一個主意，揍！四爺說：王五，這就對了！揍！（老舍，《黑白李》，115쪽）

영화 「黑白李」에서도 소설에서의 黑李 역인 子安을 찾아간 사회부 기자인 여주인공 俞竹筠이 인력거꾼들이 전차를 파괴한 사건을 밤새워서 기사로 썼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

俞竹筠: 인력거꾼들이 전차를 부순 그 일을 당신은 못 들었나보군요. 일전에 전차를 개통했었잖아요? 인력거꾼들의 생활은 힘들어져 버렸지요. …… 며칠 전에 그들이 전차를 부숴버렸어요. 수십 대는 부숴버렸을 거예요. 또 전차로를 파헤쳐버렸지요.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子安: 나는 …… 전차란 건 새로운 거예요!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게 낫긴 하죠. 이런 일은 크게 소란스러워지면 손해를 입는 건 분명 보통 사람들이지요. 10)

시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는 俞竹筠의 질문에 그는 일이 커질수록 고생하는 것은 평범한 일반인들이라고 답하기는 하지만 피상적일 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소설에서의 白李 역인 子鳴은 북경 기차역으로 인력거를 끌고 자신을 마중 나온 老王과 만나자 그는 자신에게 말을 편하게 하라고 하며 격식을 차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눈다.

老王: 전차를 부숴버린 일을 들으셨나요?

子鳴: 그래요. 南京의 신문에도 났어요. 하지만 기사가 자세하지는 않았어요. 앞서시죠. 그건 통쾌했어요! 수십 대를 부숴버렸지요. 사람들도 잡아갔다고 하던데요.

老王: 그러게요! 5백여 명이래요. 불리한 건 우리에게겐 그게 없다는 거죠. 저 개만도 못한 놈들 손에는 총이 있구요.

子鳴: 당신도 참여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다니 우선 이 사람들을 구해낼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11)

10) 俞竹筠: 就是人力車夫砸電車的那件事, 這倒沒听說, 前一陣的日子不是電車通了嗎? 人力車夫的日子却不好過了。…… 前幾天他們就把電車給砸了。砸坏了幾十輛呢, 還把鐵軌給掘了。如果站在一個市民的角度, 你怎麼看待這件事兒? 子安: 我……電車, 是一個新鮮玩意兒! 最好是相安無事吧。這種事情鬧大了, 吃虧的肯定還是老百姓。(영화 「黑白李」)

11) 老王: 砸電車的事, 您听說了嗎?

이 두 사람은 흥분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형과는 달리 白李는 첫 장면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老舍의 《黑白李》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영화 「黑白李」에서 감독이 공들여 다룬 내용은 老五와 子鳴이 함께 地壇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여 북경대의 林 선생이 하는 강연을 듣는 부분이다. 당국에서 붙잡아간 무고한 사람들을 조속히 석방해달라는 내용의 林 선생의 긴 연설은 다음과 같다.

清 정부가 물러나고 나서 우리는 수십 년간 민주를 이야기해 왔지요. 하지만 민주(德先生)는 여전히 우리와는 거리가 멀고 각 군벌들은 정권을 탈취하여 모두 크게 한 밑천 잡으려는 생각뿐입니다. 우리가 전차를 부수려는 것은 신문물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군벌정치꾼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전차라는 명분을 빌어 모든 인력거꾼들을 밀어내려 하는 것이지요. 최근 張大帥는 더욱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이고 그가 가진 무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들 열강들에게 맞서는데 쓰지 않고 우리나라를 강대하게 하는데 쓰지도 않고 자기 세력을 강력하게 만드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인력거꾼들에게 충을 발표하라고 한 건 바로 그가 내린 명령으로 그는 완전히 도살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입을 다물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본때를 보여주려 할 겁니다. 나는 기필코 입을 다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없고 이 세상은 너무 암담해질테니까요.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강한 빛을 만들어야 하고 이 어두운 밤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¹²⁾

老舍의 소설 《黑白李》에서 소략되었던 내용을 부가 설명하는 듯 한 이 대목은 영화에서 특히 돋보이는 장면으로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다. 소설에서의 한계성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려는 듯이, 영화에서는 인력거꾼 전차 파괴

子鳴: 是的, 也登了. 不過不詳細. 你坐着, 那叫痛快! 砸了它好幾十輛車呢. 听说還抓人.

老王: 可不! 五百多號呢. 吃虧就吃咱手裏沒家伙. 這帮狗子他們手裏有槍.

子鳴: 你也參加了. 抓了這麼多人, 得先想辦法救人哪. (영화 「黑白李」)

- 12) 從清政府下臺, 我們講了幾十年的民主. 可是德先生還是離我們太遠, 各個軍閥搶着坐莊都想大撈一把, 我們砸電車不是反對新生物. 而是我們反對軍閥政客, 借着電車的名義, 要把所有的三輪車夫擠掉. 如今的張大帥更是肆無忌憚, 他的武力, 不去對付那些虎視眈眈的列強, 不去強大我們的國家, 却用來強大自己的實力. 要我說, 向車夫開槍的, 就是他下的命令, 他是一個徹頭徹尾的屠夫. 有人對我說, 要我閉嘴, 如果我不閉嘴的話, 就要給我點顏色看一看, 我偏不閉嘴, 我們不能爲自己活着, 這個世界太黑暗了. 我們需要光, 我們要做一束強光, 劃破這個黑夜. (영화 「黑白李」)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알려주며 이 사건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해 주고 아울러 노동자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상을 제시하고자 의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吳永平은 《黑白李》의 중심 줄거리는 인력거꾼들의 전차 파괴 이야기이고 소설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으로 阮明식 인물은 白李이고 조연 중의 한 명으로 祥子식 인물은 王五¹³⁾라고 주장하며 장편소설 《駱駝祥子》의 연장선상에서 이 소설을 이해하고 있다.

《駱駝祥子》에서 阮明이라는 인물은 曹선생을 공산주의자라고 당국에 고발한 인물로, 대학시절부터 부도덕한 인물이었으며 그 자신이 오히려 더 과격한 혁명가였다. 阮明은 공무원이 된 후 자신이 예전에는 타도를 외쳤던 일들을 오히려 즐기게 되어 아편을 피우고 도박에 손대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간다. 당시 혁명기관에서는 阮明을 혁명공작원으로 선발해 운동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그는 사치를 즐기느라 돈이 부족하게 되자 다시 이전의 과격사상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이는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상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려는 목적이었다. 당시 혁명을 선전하기에 급급한 혁명기관은 신중하게 사람을 고를 겨를도 없이 지원해 오는 사람은 무조건 동지로 삼는 상황이었고 운동자금을 받은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과를 올려서 기관에 보고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급해진 阮明은 돈만 물 쓰듯 쓰며 놀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인력거꾼을 조직하는 일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해 祥子は 阮明을 알게 된다. 이때는 小福子도 자살해버리고 난 뒤라 타락의 길로 들어서 그저 돈을 받고 깃발을 휘두르며 시위에 가담하는 일로 쉽게 먹고 살던 祥子は, 돈 60위안에 阮明을 팔아넘기고 허리춤에 넣어둔 돈을 만지작거리며 몰래 들키지 않고 어디에 쓸지를 궁리하느라 바쁜 인물로 전략해 버린다. 결국 阮明은 조리돌림에 총살형을 당하는 최후를 맞는다.¹⁴⁾ 阮明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 사상을 팔았고 祥子は 돈의 유혹에 사상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즉,

13) 吳永平, <《駱駝祥子》: 沒有完成的構思-文本細讀及文化社會學分析>, 112쪽 참고.

14) 老舍, 《駱駝祥子》, 225-226쪽 참고.

阮明이나 祥子나 둘 다 모두 혁명에 대한 의지나 신념과는 무관한 인물들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이 각각 白李와 王五의 이미지의 연상선상이라는 의미는 당시 老舍가 혁명에 대해 모호하게 인식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黑白李》에서 이들을 老舍가 원래 의도한 바대로 일정부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서 냉철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黑白李》 외에도 《月牙兒》, 《駱駝祥子》 등 30년대 작품에서도 老舍는 공산당원과 그들의 혁명에 관하여 다룬 바 있다. 《黑白李》에서의 白李는 《駱駝祥子》에서의 阮明, 그리고 《月牙兒》에서의 新派 등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다. 작품 속에서 이들을 통해 묘사된 인력거꾼 전차 파괴 사건의 '혁명'은 실제적인 중국 혁명의 현실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駱駝祥子》에서의 나이든 인력거꾼 老馬와 祥子が 나누는 대화에서도 老舍는 시민사회에서 노동자 개인이 어떻게 조직을 이루어내는지 그 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駱駝祥子》에서 阮明이 인력거꾼 전차 파괴 거사를 위해 사람들을 모아 조직을 만드는 내용과 《黑白李》에서 조직한 인력거꾼 전차 파괴 사건에 관한 내용은 모두 동일한 실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老舍가 중국 혁명에 있어 공동 목표를 가지고 연합하여 단체를 조직해내는 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⁵⁾ 老舍 자신의 고백처럼 그저 모호하게 책에서 혁명 이론을 얻어서 이 혁명의 이론만으로 혁명의 실제까지 충분히 묘사하지 못한 점도 인정해야 할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老舍가 오랜 기간 작품들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과 생각을 내내 해 온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老舍가 이 사건이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가 당시의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이 사건에 대해 소설을 통하여 우회적인 방식의 비판을 선택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5) 古世倉·吳小美, 《老舍與中國革命》, 民族出版社, 2005, 151쪽 참고.

3. 기독교적 색채: 카인과 아벨의 변용과 희생

최초의 인류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성서 창세기 제4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농부인 형 카인과 양치기인 동생 아벨이 각각 선·악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자리한 이래로 카인과 아벨 형제의 선과 악의 대립적 소재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 전 세계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각색되고 변용되어 왔으며 이는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새로운 작품들 속에서 모습을 달리 한 채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다.

젊은 시절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老畝의 《黑白李》속 주인공 형 黑李와 동생 白李 역시 포괄적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성경》에 등장하는 카인과 아벨 형제 모티프를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카인과 아벨의 극단적 선악 구도 양상과는 달리 黑李와 白李는 대비적 인물임에는 분명하지만 선악의 구도를 띠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카인과 아벨의 형제 불화의 서사는 《黑白李》에서는 전혀 다른 변용된 양상을 띤 서사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이러한 형제의 이야기를 담은 《黑白李》의 기독교적 색채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老畝의 기독교와 관련된 인연¹⁷⁾을 살펴보도록 하자. 1922년 세례를 받

16) 카인의 소재는 독일 문호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데미안(Demian)》(1919)에서도 복잡하게 각색 변형되어 나타나며, 미국작가 존 슈타인벡(J. Steinbeck)은 잘 알려진 작품 《에덴의 동쪽(East of Eden)》(1952)에서 전형적인 이 소재를 차용하여 작가의 원숙한 포용적 인간애를 표현한 대작으로 만들었다. (두행숙,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본 문학 소재의 비판적 고찰 -“카인과 아벨”의 소재를 중심으로>, 《독어교육》제30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4, 265쪽 참고) 주지하듯이, 이외에도 많은 작품과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매체에서도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 모티프를 폭넓게 차용하고 있다.

17) 老畝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은 점과 老畝의 부인인 胡絮青이 ‘老畝는 그저 기독교와 선과 구세의 정신을 중시했지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았다’고 한 말에 근거하여 老畝가 기독교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견해도 있다. 또한 老畝와 기독교의 관계가 시종 이도 저도 아닌 모호한 관계였다고 보기도 하며 老畝는 절대 종교를 믿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학자들은 老畝가 언제 어디에서 기독교에 대해 수용하고 버렸는지에 대해 판명하는 문제를 중요시하기도 한다. 劉勇의 경우는 상술한 견해들이 모두 다소 편파적인 것이며 老畝의 작품 경향에 기독교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

고 기독교에 입교한 이래로 老舍는 줄곧 적극적으로 기독교 문화의 보급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北京에서나 南開中學이든 齊魯大學에서든 어디에서나 老舍는 내내 기독교 조직과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北京缸瓦市中華基督教會規現行規約>을 책임 편찬한 바 있고 缸瓦市 中華基督教 主日學 총간사직을 맡기도 하였다. 종교적 의미가 농후한 老舍의 영문명 Colin C. Shu의 'Colin' 역시 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바로 그의 세례명이었다.¹⁸⁾ 또한, 중국 현대문학 작가들 가운데 老舍처럼 세례를 받고 기독교도가 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였다.

老舍가 南開中學 교사로 재직 시 雙十節 기념행사에서 한 강연에서 여기서의 '雙十'을 두 개의 십자가로 해석한 바 있다. 그는 예수가 하나의 십자가를 졌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하여 두 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즉, 유해한 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희생의 의미의 십자가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희생의 의미의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역설¹⁹⁾ 하였다. 기독교에서 예수가 진 십자가에 비유한 인용은 당시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으며 이 역시 평소 老舍가 받은 종교적 영향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老舍는 1932년 <以善勝惡>이라는 제목의 기독교 관련 강연을 하는데 이 강연은 그의 사회관과 종교관을 그대로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老舍의 깊은 우환 의식과 뜨거운 救世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독교도로서의 그의 또 다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老舍는 당시 사회의 타락과 어두운 면을 '양심의 문제'로 귀결하여 규정했는데 바로 이런

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평가한다. (劉勇, 《中國現代文學的心理學研究》, 北京出版社, 2006. 138쪽 참고)

- 18) 石小寒, <駱駝祥子>新論>,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15年第4期, 82쪽 참고.
런던대학 동방학원(School of Oriental Studies)에서 보낸 영국 체류 시기를 거쳐 귀국 후 서양 기독교 재단의 미션스쿨인 齊魯大學에서 교수로 재임하면서 1930년대 문단에서 독자적인 작가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기독교 관련 단체의 후원과 인적 관계망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백영길, <老舍< 고양이 나라 이야기(貓城記)>의 종교적 상징성>, 《중국어문논총》제55집, 중국어문연구회, 2011, 256쪽 참고)
- 19) 김수진, <老舍 문학의 민족의식 구현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219쪽; 老舍, <雙十>, 《老舍文集》第14卷, 人民文學出版社, 1995, 265쪽 재인용 참고.

관념은 그를 중국의 국민성 문제, 인간의 영혼에 대한 관심, 국민성에 대한 형상화에 내내 집중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는 그의 소설의 일관된 주제가 되었다.²⁰⁾

老舍의 단편소설 《黑白李》는 혁명문학 운동의 영향을 받아 이에 포커스를 맞추어 창작한 것이기도 하지만, 작가의 창작의도의 무게중심의 한쪽은 작품 속에서 기독교적 희생정신을 지닌 인물 이미지의 구현에도 비중감 있게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²¹⁾

사실 《黑白李》에서 黑李는 첫 등장부터 종교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지는 않다.

우리 둘은 또 다른 것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요즘 종교를 연구한다고 했다. 내가 알기로는 그의 독서는 흥미 여부에 좌우되었다. 그가 종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염세주의에 젖었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²²⁾

그의 놀이도 나날이 늘어갔다. 점을 보고 패를 짚어 보기도 하고 문자점을 치고 종교를 연구하고…….²³⁾

20) 劉濤, <老舍의基督教信仰與救世觀及其他-從最近發現的三篇老舍佚文談起>, 《中國現代文學叢刊》2010年第2期, 199쪽 참고. 강연 서두에서 老舍는 우선 자신의 '오늘날의 사회'에 대한 견해 전반을 발표하며 '오늘날의 사회가 열악한 사회가 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고 '오늘날의 사회'가 열악한 가장 중요한 근원은 곧 '인간의 양심의 문제'로 이는 사회가 열악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소위 '경제적 어려움', '과학 미발달' 및 '농촌파산'은 그저 중국사회의 열악한 근원의 일부본일 뿐 결코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하였다. (劉濤, <老舍의基督教信仰與救世觀及其他-從最近發現的三篇老舍佚文談起>, 198쪽 참고)

21) 다른 견해로는 老舍가 이 소설을 기독교 신봉에서 사회혁명 참여로 전향하는 이정표로 삼았다는 것으로 王惠雲, 蘇慶昌 등의 연구자는 《老舍評傳》에서 老舍는 《黑白李》에서 '박애주의 사상을 띤 인물을 부정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즉 老舍가 창작 초기에 받은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吳永平, <老舍小說《黑白李》新解-文本細讀與文化學分析>, 122쪽 참고; 王惠雲, 蘇慶昌, 《老舍評傳》, 花山文藝出版社, 1985, 94쪽 재인용)

22) 我們倆又談了些別的, 他說這幾天正研究宗教。我知道他的讀書全凭興之所至, 我決不會因為談到宗教而想他有點厭世, 或是精神上有甚麼大的變動。(老舍, 《黑白李》, 106쪽)

23) 他的小玩藝也一天比一天增多: 占課, 打卦, 測字, 研究宗教…….(老舍, 《黑白李》, 109-110쪽)

이처럼 도입부에서 黑李는 다양한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종교 역시 소일거리로 공부하는 수준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의 종교에 대한 인식이 전문적인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그가 점점 교회를 찾는 일이 늘어나고 기도를 하는데 老舍는 그를 이처럼 처음에는 종교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도덕성과 양심을 중시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그가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친구를 만나러가는 것이려니 하고 나는 생각했다. 밖에서 그를 잠시 기다렸다. 그는 나오지 않았다. …… 그것은 바로 그가 사소한 어떠한 일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찻잔의 꽃무늬가 가지런하게 있지 않아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의 마음속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했다. 그래야 양심이 편안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양심을 굳히기 위해서이다. 양심이란 옛 성현들이 그에게 알려준 것들이다. ……²⁴⁾

소설의 중반 이후부터 黑李는 신약성경의 四福音書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며 점점 求道者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녀’를 동생 白李에게 양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白李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며 그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매일 기도를 한다.

나는 아마도 그녀를 진짜 사랑하는지도 모른다. …… 요컨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지. …… 나는 요즘 10여 일간 四福音書를 다 읽었어.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넷째의 일을 맡아 해야겠어. 그 애가 날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 나는 정말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어. 그의 말을 믿지도 않았지. 그가 종교의 자극을 좀 받고서 자신의 감정을 더 많이 드러내게 될지 어찌 알겠어? …… “기도가 확실히 효과가 있어.” 그는 중중하게 말했다. “요 며칠 나는 매일 기도했지. 과연 넷째가 그 일을 얘기하지 않더라구.”²⁵⁾

24) 有一個禮拜天的早晨，我看見他進了禮拜堂。也許是看朋友，我想。在外面等了他一會兒。他沒出來。……那正是因他對任何小事都要慎重地考慮。茶碗上的花紋擺不齊都覺得不舒服。哪一件小事也得在他心中擺好，擺得使良心上舒服。上禮拜堂去禱告，爲是堅定良心。良心是古圣先賢給他制備好了的。……(老舍, 《黑白李》, 110쪽)

25) 我大概是真愛她, …… “總是勸人爲別人犧牲” …… “這十日來天, 我已經讀完‘四福音書’。我也想

친구인 '나'에게 黑李는 성경에서 읽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하는데, 소설 속의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른 한편 마음이 편치 않음을 느낀다. 동생과 사랑하는 여인을 대하는 黑李의 태도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불길한 예감을 갖는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에게 맡긴 동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려는 黑李는 1000위안을 달라는 白李에게 돈의 사용처를 묻지도 않고 내주면서 동생이 하려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白李가 어떤 위험한 계획을 추진 하든 간에 분가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이다. 黑李의 白李를 향한 이러한 무조건적 사랑과는 달리 白李는 형을 가족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黑李를 존경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

형은 늘 저를 '동생'이라 여겨서, 항상 자신의 감정으로 남의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죠. 항상 저를 이해하고 있는 척 하지만 사실 형은 시대의 낙오자예요. 이 시대는 나의 것이라구요. 형이 노심초사하며 내게 신경 쓸 필요가 없대구요.²⁶⁾

'시대의 낙오자'라는 형에 대한 白李의 인식은 시종일관 바뀌지 않으며 그는 형과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 이해를 구하거나 함께 의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白李의 태도에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자신의 일에 형을 연루시키고 싶지 않은 이유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

白李는 분명 위험한 계획을 하고 있다. …… 그래서 형을 끌어들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는 물론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²⁷⁾

好了, 我應當分擔老四的事, 不應當只是不準他離開我。”…… 我真沒想到這一層。可是還不深信他的話; 焉知他不是受了點宗教的刺激而要充分地發泄感情呢? …… “禱告確是有效,” 他鄭重地說。“這幾天我天天禱告, 果然老四就不提那回事了。”(老舍, 《黑白李》, 110-113쪽)

26) “他老拿我當作‘弟弟’, 老拿自己的感情限定住別人的行動, 老假裝他明白我, 其實他是個時代落伍者。這個時代是我的, 用不着他來操心管我。”(老舍, 《黑白李》, 108쪽)

27) 白李確是有個帶危險性的計劃。……省得把哥哥拉扯在內。他當研是不怕犧牲, 也不怕別人犧牲。(老舍, 《黑白李》, 115쪽)

소설에서 이들 형제간의 대화와 소통은 늘 부재상태이고 결국 黑李는 거사에 실패한 동생 白李로 위장해 체포되기에 이른다. 조간신문에 실린 전차 파괴 폭동의 실패 소식과 함께 白李의 총살 소식이 도시 전체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폭폭 찌는 무더위 속에서 트럭에 실려 포박당한 채 黑李는 형장으로 끌려 간다.

차 근처로 점점 가까이가 보니 이름이 쓰인 하얀 깃발 두 개가 차가 움직일 때마다 살쩍살쩍 흔들리고 있었다. 앞에 앉은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입술만 살쩍 움직이는 것이 마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차는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고 그는 내 바로 앞에 앉은 채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쏟아지는 눈물이 마음을 정신없게 만들었다. 차가 한참을 지나가고 나서야 나는 정신이 들었다. 줄곧 차를 따라서 사형장으로 갔다. 그는 도중에 고개도 한 번 들지 않았다. 그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고 입을 약간 벌린 채로 가슴에는 피가 흥건했다. 마치 죽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시신을 수습했다.²⁸⁾

동생 白李에 대한 黑李의 무조건적인 양보와 헌신, 희생은 결국 이처럼 白李를 대신해 죽음을 자청하는 상황까지 가게 한다. 老舍는 이 장면을 인류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고난과 희생의 형상이 연상되도록 설정²⁹⁾하였음을 알 수 있다. 黑李가 희생의 상징으로서 성경의 아벨처럼 선과 양심을 대표로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면, 白李는 성경의 카인이라는 이미지에서 변용된 인물로 원전에서처럼 악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니다. 이들 형제는 이름조차도 ‘黑李와 ‘白李로 흑백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은 두 사람은 쌍둥이는 아니라는 생김새가 똑같지는 않아도 서로 닮아 있으며 단

28) 車越走越近了，兩個白招子隨着車輕輕地顫動。前面坐着的那個，閉着眼，額上有點汗，嘴唇微動，像是禱告呢。車離我不遠，他在我面前坐着擺動過去。我的淚迷住了我的心。等車過去半天，我才醒了過來，一直跟着車走到行刑場。他一路上連頭也沒擡一次。他的眉皺着點，嘴微張着，胸上汪着血，好像死的時候正在禱告。我收了他的尸。(老舍，〈黑白李〉，117-118쪽)

29) 老舍는 장편소설 《四世同堂》에서 錢默吟이 체포되어 가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를 ‘현실 속의 예수’로 형상화시키기도 하였다.

지 눈썹 부위에 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붙여진 별명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형제는 성격과 행동 면에서 겉보기에는 대비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표면적인 불화 역시 끈끈한 형제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黑李의 희생이 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세상에 하나 남은 가족인 동생에 대한 희생이라면 白李에게서도 역시 희생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의 희생은 가족을 뛰어넘어 사회로 확대된 양상을 띠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희생임을 알 수 있다. 그는 결코 형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지 않았기에 시종일관 것처럼 형에게 속이야기를 털어놓지 않고 거리를 두고 지냈던 것이다. 그런 형이 거사를 주도한 자신으로 위장하여 죽음을 맞이 하자, 살아남은 白李로서는 숨 쉬며 살아 있는 현실이 곧 지옥인 셈이 되어버린다.

둘째 형은 아마 천당에 가셨을 거예요. 형은 그 곳이 제일 어울려요. 저는 아직 여기서 지옥문이나 부수고 있지요.³⁰⁾

주지하듯이 老舍는 단테와 그의 작품 《신곡》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그는 권선징악의 ‘지옥’, ‘천당’ 등의 이미지를 작품 속에 녹여내고 있는데, 老舍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我是怎麼樣寫《駱駝祥子》的>라는 글에서도 “인력거꾼의 심리상태로부터 지옥이 대체 어떤 곳인지에 대해 관찰하고자 한다”³¹⁾고 언급한 바 있었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나’는 黑李가 죽고 나서 몇 달이 지나 상해에서 우연히 白李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 사이 더 노숙해져버린 白李는 죽은 그의 형 黑李와

30) “老二大概是進了天堂，他在那裏頂合適了；我還在這兒砸地獄的門呢。”(老舍, 《黑白李》, 118쪽)

31) 石小寒, <《駱駝祥子》新論>,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15年第4期, 78쪽; 老舍, <我是怎麼樣寫《駱駝祥子》的>(<我怎樣寫小說>, 上海文匯出版社, 2009年, 재인용)

더욱 닳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형의 희생을 딛고 홀로 남겨진 白李의 남은 삶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다. 순교자처럼 죽은 형의 몫까지 다해 사회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남은 평생을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4. 소설과 영화 「黑白李」

원작과 동명의 영화 「黑白李」는 2010년 老舍의 《黑白李》를 각색하여 제작한 영화로 潘鏡丞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지명도 있는 배우인 楊舒婷 주연의 영화로 알려져 있다. 배우 林熙越가 소설에서의 黑李에 해당하는 子安 역을 맡았고 王雨가 白李에 해당하는 子鳴 역을 맡았다. 楊舒婷이 맡은 역은 俞竹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黑李와 白李 형제가 좋아하는 여인으로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영화에서는 주연은 아니어도 영화의 흐름상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소설에서는 黑李와 白李 형제가 모두 한 여인을 사랑하지만 黑李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여인을 양보하기로 마음먹는다.

“여자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를 잃을 수는 없어.”…… “삼각관계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 그녀에게 말했어. 그녀가 누구를 사랑하든 간에 난 이제부터 더 이상은 그녀와 만나지 않겠다고 말이야. 후련해!”³²⁾

영화에서의 竹筠과는 달리 소설에서의 ‘그녀’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조건을 재보기 위한 듯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www.kci.go.kr

32) “不能因爲個女子失了兄弟們的和氣。”…… “三角戀愛，不得勁兒。我和她說了，不管她是愛誰，我從此不再和她來往。覺得很痛快！”(老舍, 《黑白李》, 105쪽)

내가 그녀에게 白李 소식을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굳이 나에게 黑李 이야기만 했다. 나는 그녀가 분명 — 만약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해도 — 黑李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마도 그녀는 黑李에게 동그라미를 해놓고는 표준으로 삼고 있는 듯 했다. 그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자신의 마음의 자리에서 내보내고, 그보다 잘난 사람을 내내 찾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아마도 그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비록 그저 생각일 뿐이지만 이 기회에 그와 그녀를 다시 맺어주고 싶지 않았다. 순리대로라면 맺어줘야 하겠지만, 내가 黑李를 너무나 아끼다보니 그는 천상의 선녀라 해도 아내로 맞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늘 들었다.³³⁾

친구인 내가 보기에 ‘착하고 마음 좋은’ 黑李가 오히려 그녀의 짝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는 지고지순형의 여주인공이 아닌데 이는 영화 속의 竹筠과는 다른 면모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설과는 달리 비중이 큰 역할인 영화 속의 俞竹筠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신문사 기자로 소신과 의지가 뚜렷한 신여성이다. 그리고 형 子安은 茶樓를 경영하며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인물이다.

소설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나’는 黑李와 白李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한 형제의 학교 친구이다. 《黑白李》는 ‘나’를 중심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나’는 黑李와 白李 양자 간 어디에도 편향된 서술을 하지 않으므로써 관찰자의 객관적 시점을 내내 유지하고 있다. ‘나’는 서두에서 자신이 하려는 이야기가 이 형제가 사랑하는 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전개되는 사랑 이야기가 아님을 밝히면서도 시작은 이 사랑 이야기에서 풀어나가겠다고 이야기한다.

영화 「黑白李」의 도입부는 민국시기 거리를 찍은 실제 풍경의 정지된 화면 속 흑백사진에서 시작된다. 뒤이어 인력거와 말이 끄는 수레가 공존하는 거리의 사진이 다시 컬러 화면으로 바뀌고 세련된 현대여성 竹筠이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竹筠이 자전거를 타고서 子安이 운영하

33) 我和她打听白李，她偏跟我谈论黑李。我看出来，她确是注意一假如不是爱一黑李。大概她是要圈住黑李，作个标本。有比他强的呢，就把他免了职；始终找不到比他高明的呢，最后也许就跟了他。这么一想，虽然只是一想，我就没乘这个机会给他和她再撮合一下；按理说应当这么办，可是我太爱老李，总觉得他值得娶个天上的仙女。（老舍，《黑白李》，112쪽）

는 茶樓로 가며 지나는 거리에는 당시의 갖가지 먹거리들과 차력사들,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潘鏡丞 감독은 당시의 거리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子安은 북경의 인력거꾼 전차 폭파 사건에 관한 기사를 쓰느라 밤을 새 사회 부기자 竹筠을 위해 직접 차와 요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가 정성껏 준비해준 요리를 함께 먹으며 竹筠은 이 사건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한다. 子安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러한 그의 모습에 竹筠은 실망을 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 竹筠은 子安에게 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상해에서 가져온 최신 스타일의 갈색 구두를 선물한다. 그가 입고 있는 전통 복장과 갈색 구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이지만 子安은 자신의 앞에서 곧바로 신어 보기를 원하는 竹筠을 위해 수줍어하며 선물 받은 구두를 신고 나온다. 그런 그의 모습에 竹筠은 子安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子安 역시 어색해 한다. 또한 전통방식의 생활과 태도에 익숙해져 있는 子安은 구시대에 속하는 자신과는 다른 면모를 지닌 진보적인 동생 子鳴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지만 그 자신이 변화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子安: 그 애는 당신과 같은 신식이죠.

竹筠: 당신은 골동품인가요?³⁴⁾

소설에서도 이들은 평소 언쟁을 벌이는 일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이좋은 형제이나 사회적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달랐다. 老舍는 黑李는 '구식 인물'로 白李는 '모던한 인물'로 설정³⁵⁾하고 있으며 白李는 형인 黑李와는 별명만큼이나 극명하게 다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黑李보다 훨씬 영리해보였다. 그를 한번

34) 竹筠: 他是跟你一樣新派。子安: 你是老古董嗎?(영화 「黑白李」)

35) 黑李要是“古人”, 白李是現代的。(老舍, 《黑白李》, 104쪽)

보면 어느 곳에서든 리더를 해야 할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상대에게 그가 지시하는 길로 가라고 지도하지는 않지만 상대를 단두대에 올려놓는 듯 했다. 그의 형과는 정반대로 체면 차리는 말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³⁶⁾

白李는 우리를 '두 바보들'이라고 무시하는 거만한 청년일 뿐 아니라, 그는 확실히 자신의 목표가 뚜렷한 인물이었다.³⁷⁾

영화 「黑白李」에서는 원작 소설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이들 형제들을 둘러싼 중심 사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사랑 이야기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서사로 자리 잡고 있다. 소설에서 서술을 이끌어가는 '나'처럼 영화에서의 '華先生'은 형제 곁에서 이들을 조용히 지켜보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역시 子安은 오랜 골동품과 같은 인물로 子鳴은 新派에 속하는 인물로 인식하며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두 인물의 존재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다.

新派에 묘사되는 인물인 子鳴은 2년 만에 외지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기차역까지 마중 나온 집안의 인력거꾼인 老王³⁸⁾에게 그는 잠시 쉬며 담배를 편하게 피우라고 권하면서 자신을 나으리(小二爺)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다.

규칙은 무슨. 우린 친구인걸요. 친구 사이에 누가 누구의 나으리란 말인가요.³⁹⁾

子鳴은 老王과 地壇에서 열리는 북경대 林선생의 강연을 들으러 간다. 마침 竹筠도 현장을 취재하러 나왔다가 林선생이 강연 도중 충격을 당하는 혼란스런 와중에 만년필을 떨어뜨린다. 순경을 피해 도망가던 子鳴이 만년필을 주워

36) 他在大學還沒畢業，可是看起來比黑李精明着許多。他這個人，叫你一看，你就覺得他應當到處作領袖。每一句話，他不是領導着你走上他所指出的路，便是把你綁在斷頭臺上。他沒有客氣話，和他哥哥正相反。(老舍，《黑白李》，106쪽)

37) 白李不僅是看不起“兩糟蛋”的狂傲少年了，他確是要樹立住自己。(老舍，《黑白李》，108쪽)

38) 소설에서 黑李 집에서 지난 4년간 인력거를 끌던 王五는 성실하고 믿음이 가는 인물로 삼십여 세에 머리에는 상처자국이 있고 가끔씩 술을 좀 즐기는 것 말고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39) 甚麼規矩不規矩啊。咱們是朋友。是哥兒們，咱啊，誰也不是誰的爺。(영화 「黑白李」)

주며 첫 만남을 가지지만, 소설과는 달리 서로 애정을 품지는 않으며 이후로도 삼각관계를 조성하지 않으며 소설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소설에서의 '나'인 子安의 친구 華선생에게 子安은 자신이 竹筠에게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지만 모친이 돌아가실 때 한 약속대로 子鳴을 잘 돌보기 위해 동생이 안정이 된 후에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子鳴이 외부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있다는 생각에 그가 어서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신문사에 일 자리를 알아봐 주며 온통 子鳴 걱정에 가득 차 있다.

子安: 네가 돌아왔으니 나의 이상이 실현된 거야. 너는 나의 이상이야.⁴⁰⁾

子安은 子鳴에게 지금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茶樓를 나중에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한다. 신문사로 출근하는 양복 차림의 子鳴이 신은 낡은 구두가 눈에 띄자 竹筠이 선물해준 한 번도 신지 않은 구두를 子鳴에게 준다. 이러한 子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子鳴은 신문사로 출근하지 않고 점점 주도적으로 기사를 모의한다. 그가 자신이 부탁해 취직시켜 준 신문사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간 사실을 안 子安은 처음으로 子鳴에게 화를 낸다.

영화에서 竹筠의 마음은 항상 子安에게 향해 있고 子鳴은 형 子安과 竹筠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에 둘 사이의 감정을 눈치 채기는 하지만 竹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는 시종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이 상황을 이용하여 子安으로 하여금 자신이 竹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고는 이를 이유로 분가를 요구하는 편지를 남긴다.

子鳴은 竹筠에게도 자신이 竹筠을 좋아하는 것처럼 꾸미자고 하지만 형제 사이의 일에 얽히고 싶지 않은 竹筠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子安은 子鳴이 자신과 그녀의 결혼을 재촉한 이유가 그가 실은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을 끊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사랑도 동생에게 양보할 결심을 한다. 특히 두 사람은 자신과는 달리 '新派'이므로 더욱 잘 어울린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힌

40) 你回來了, 我的理想實現了. 你是我的理想. (영화 「黑白李」)

다. 子安은 자신을 위해 竹筠을 포기하려 한다고 여기고는 子鳴을 설득하고자 노력한다.

子安: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 다 줄게.

子鳴: 이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동생은 없다고 생각해.⁴¹⁾

형 子安을 대신해 竹筠에게 子鳴은 용서를 구하지만 그녀는 서운한 마음에 화를 풀지 않는다. 子鳴이 집을 나가버리자 子安은 이에 실의에 빠지고 무엇보다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도 어찌지 못하여 결국 몸져눕게 된다. 이후 張大帥 암살 모의 사건을 전해들은 竹筠은 子安을 찾아간다. 방문을 잠고 俞竹筠의 이름만 온종일 쓰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子安의 모습에 들은 결국 오해를 풀고 子鳴은 竹筠의 집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고 마침내 혼례를 올린다. 하지만 子鳴은 정작 형의 혼례에도 참석하지 않고 편지를 남기고 떠나버린다.

혼례를 치른 이튿날 張大帥의 壽宴에 쓸 차에 문제가 생기자 친구인 華선생의 요청으로 茶樓를 운영하는 子安이 대신 차를 제공하고 직접 가서 설명해주기로 한다. 壽宴의 공연을 지켜보다가 張大帥를 저격하는 子鳴을 목격한 子安은 고민할 새도 없이 子鳴이 숨어들어간 창고로 몰래 들어가서 그의 머리를 선물로 받은 찻주전자로 뒤에서 내리쳐 기절시키고는 자신이 그의 옷을 입고 나간다. 그리고는 창고를 에워싼 순경들에게 자신이 범인임을 밝히고 자수한다. 그는 이렇게 독백한다.

이게 바로 너의 이상이란 거니?⁴²⁾

잠시 후 기절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子鳴은 달려온 華선생 일행에 의

41) 子安: 如有你願意的, 我甚麼都會給你。子鳴: 以後再也不回家, 你算是沒有弟弟。(영화 「黑白李」)

42) 這就是你做的理想?(영화 「黑白李」)

해 집으로 옮겨지고, 그가 자수를 하러 갈까 염려하여 나무 기둥에 묶어놓는데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온 子鳴은 예상 밖으로 전개된 상황에 오열을 멈추지 않는다.

子安은 그 시각 거리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형장으로 끌려가 죽음을 맞는다. 子安의 옷을 입고 나무에 묶인 子鳴을 竹筠은 원망하는 기색 없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침착한 표정으로 풀어준다.

竹筠: 형님은 천당에 갔을 거예요. 어디로 가실건가요?

子鳴: 지옥문을 부수러 갑니다.⁴³⁾

망연한 표정으로 작은 짐 보따리 하나를 걸머지고 문을 나선 子鳴이 결연한 표정으로 눈길을 정처 없이 걷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을 맺는다.

이처럼 소설 《黑白李》를 영상으로 옮긴 영화 「黑白李」는 원작의 서사 라인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고 黑李와 白李의 기본적인 캐릭터 역시 작가 老舍의 의도대로 그리고자 했다. 영화에서는 특히 신여성의 이미지를 지닌 俞竹筠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원작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원작과는 다소 차별성을 띤 서사를 새로이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영화 속에서 남편인 黑李가 동생 대신 처형당하며 과부가 되는 비극적인 인물임에도 오히려 절망에 빠진 白李를 위로하는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로 성공적으로 창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나오며

이상으로 老舍의 1934년작 단편소설 《黑白李》를 당시 전국을 뒤흔들었던

43) 竹筠: 你哥會上天堂的。你去哪兒? 子鳴: 去砸地獄的門。(영화 「黑白李」)

북경 인력거꾼 전차 파괴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성경 속의 카인과 아벨의 모티프에서 변용하여 작품 속에 재현한 黑李와 白李 형제의 희생정신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老舍의 창작 의도와 기독교의 영향을 조명해 보았다. 또한 동명의 영화인 2010년작 「黑白李」과 원작과의 비교를 통하여 감독 역시 자신 영화 속에서 고수하고자 했던 원작자의 창작 의도에 접근해 볼 수 있었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9년 북경에서 일어난 인력거꾼 전차 파괴 사건은 당시 엄청난 파장과 충격을 일으킨 대사건임에도 문학 작품 속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작가는 老舍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당시 근대문명의 상징인 전차를 파괴하는 이들 인력거꾼들의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는데, 胡適이나 魯迅 같은 지식인들조차도 이 사건이 무지한 이들을 오히려 혼란의 도구로 이용하여 벌인 맹목적인 행동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북경은 이미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니 잠시 가지 말라고 권유하며 인력거꾼들이 일으킨 이 사건을 실업자들의 소동으로 규정하여 비난하기도 하였다.

국민당 측은 이 사건을 인력거꾼 노동조합이 벌인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해친 분규라고 인식했고, 공산당 측은 북경에서 어용기관인 노동조합이 '흉악하고 잔인한 국민당' 및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노동자들을 도구로 삼아 벌인 사건으로 인력거꾼들과 노동자들이 이용당한 사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老舍가 이러한 사건을 문학 작품에 투영시킨 의도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가담자 중 대다수가 인력거꾼들이었으며 이들은 사건이 실패한 후 더욱 사지로 내몰렸다. 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무지몽매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상황 판단 없이 이용당하기 만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조롱과 비난보다는, 당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사회적 상황에서 희생된 피해자라는 동정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또한 작품 속에 투영된,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지도 전략적이지도 못하고 그저 白李처럼 의욕만 앞섰던 지도자급 리더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읽어낼 수 있는데, 老舍는 간접적이고 우회적

인 방식으로 이들의 문제점과 혁명이 실패한 원인을 작품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소설 《黑白李》 작품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작품의 한계와 결점이라고 늘 지적되어 왔던 이 지점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그가 영국에 수년간 체류했다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창작한 작품이기에 당시의 혁명에 대해 작가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평가는, 작품에 대한 온전한 평가라고 보기에는 전면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老舍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 엄선한 작품집인 《老舍選集》에 이 작품을 실은 것 역시 단순히 사상의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작품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老舍의 단편소설 《黑白李》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영향을 크게 받았던 老舍 자신의 自評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되어지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 參考文獻 >

- 老舍, 《黑白李》, 《老舍文集》第8卷,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95.
- _____, 《駱駝祥子》, 《老舍文集》第3卷,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95.
- _____, 《老舍文集》第16卷,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95.
- 閻煥東 編著, 《老舍自敘—一個平凡人的平凡生活報告》, 山西教育出版社, 2000.
- 古世倉·吳小美, 《老舍與中國革命》, 民族出版社, 北京, 2005.
- 舒濟 主編, 《老舍文學詞典》, 北京十月文藝出版社, 北京, 2000.
- 劉勇, 《中國現代文學的心理學研究》, 北京出版社, 北京, 2006.
- 이형식 외, 《문학 텍스트에서 영화 텍스트로》, 동인, 서울, 2004.
- 한국서사학회, 《영화 서사 자세히 읽기》, 한국문화사, 서울, 2011.
- 吳永平, <《駱駝祥子》: 沒有完成的構思-文本細讀及文化社會學分析>, 《江漢論壇》
2013年 11月.
- 吳永平, <老舍小說《黑白李》新解-文本細讀與文化學分析>, 《江漢論壇》2004年 11月.
- 石興澤, <從保留到皈依: 老舍思想理論化和創作追求與社會主義文學思潮>, 《福建論壇·
人文社會科學版》2011年第1期.
- 石小寒, <《駱駝祥子》新論>,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15年第4期.
- 劉濤, <老舍的基督教信仰與救世觀及其他-從最近發現的三篇老舍佚文談起>, 《中國現代
文學叢刊》2010年第2期.
- 김수진, 《老舍 문학의 민족의식 구현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백영길, <老舍《 고양이 나라 이야기(貓城記)》의 종교적 상징성>, 《중국어문논총》제
55집, 중국어문연구회, 2011.
- 두행숙,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본 문학 소재의 비판적 고찰 -“카인과 아벨”의 소재를 중
심으로>, 《독어교육》제30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4.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Black Li and White Li, a short story by Laoshe in 1934, by comparing it with the actual background of the streetcar destruction case by rickshaw pullers in Beijing. The incident sent out shock waves throughout the nation those days. The streetcar destruction case by rickshaw pullers in Beijing in 1929 was a huge event that exerted enormous impacts and shocks to people during the time, but there were few writers that addressed the case in their literary works except for Laoshe. It is thus needed to contemplate over why he decided to project the case into his literary work. Most of those who were involved in the incident were rickshaw pullers. Laoshe had compassion for them, regarding them as the victims of society those days, instead of ridiculing and criticizing them as fools that were only manipulated by others. In his work, he also criticized the ruling leaders that were only driven by desire like White Li in an indirect, circuitous manner. He tried to reveal the causes of failed revolution in his work along with the problems with those leaders. The biggest significance of Black Li and White Li lies at this point, which raises a reason for looking at the point, which had been considered as a limitation and flaw of the story, from a new perspective.

The assessment that the author lacked his understanding of the revolution those days is not thus valid. He decided to include the story in his Collection of Laoshe's Works that he published through a careful selection process after the establish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was an expression of his confidence about the literary value of the story.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the self-sacrificing spirit of Black and White Li brothers, which he reproduced in the story by altering the Cain and Abel motif from the Bible,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and shed light on his creative intention and the influences of Christianity.

The narrative of brotherly feud between Cain and Abel was altered in his Black Li and White Li, in which Black Li chose to sacrifice himself for his little

brother White Li like a martyr. In Black Li and White Li, a movie of the same title produced in 2010, the director maintained the narrative line of the original work mostly and depicted the basic characters of Black and White Li the way Laoshe intended. The director highlighted the importance and role of Yuzhujun whose image was a strong modern woman in the movie, adding a new narrative of some differentiation from the original work while keeping the content of original work intact.

Key words: the streetcar destruction case, rickshaw puller, revolution, Cain and Abel motif, self-sacrificing spirit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9. 30.	2015. 10. 21.	2015. 10. 23.	2015. 11. 17.	2015. 11. 30.